

30 업무 방식 개혁 앞에 놓인 무서운 미래

• 뒤르켐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요컨대 ‘사회의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져도 개인이 반드시 자유로워지는 것은 아니며 도리어 불안정한 상태에 빠진다. 규제와 규칙이 느슨해지는 현상이 꼭 사회에 좋은 것만은 아니다’는 점이다. 국가가 아노미(anomie 무질서, 무연대) 상황에 빠지면 각 개인은 조직이나 가정에 대한 연대감을 잃고 고독감에 허덕이며 사회를 표류하게 된다. 포스트 업무 방식 개혁의 그림치고는 어딘가 쓸쓸하다.

• 회사나 가족의 해체가 진행되는 와중에 사회의 아노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일까? 세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가족의 회복이다. ‘회사는 언젠가는 배신한다. 결국 의지할 것은 가족밖에 없다’라고 생각하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는 경향이 커지고 있다.

둘째, 소셜미디어가 열쇠가 될 수 있다. 회사나 가족이라는 구조의 해체에 대응해 필연적으로 새로운 사회의 유대를 형성하는 구조가 요구된다. 희망적인 관측이지만 소셜미디어가 그 역할을 수행하게 될지도 모른다.

셋째, 회사라는 ‘종적 커뮤니티’를 대체할 ‘횡적 커뮤니티’다. 이를 역사적인 말로 표현하자면 길드(guild)의 부활에 다름없다. 이제 회사의 수명이 현저하게 짧아지고 경제 정세의 변화로 그 커뮤니티에서 배제되는 사람이 많아질 것으로 예견된다. 그러니 이 종적 구조 사회가 앞으로 지속될 거라고는 볼 수 없다. 유럽은 회사별 노동조합보다 직업별 노동조합이 표준이며, 그런 의미에서 횡적 커뮤니티가 길드로서 제 기능을 다하는 사회다.

• 어느쪽이든 중요한 건 회사라는 종적 구조의 커뮤니티가 자신에게 더 이상 안전한 커뮤니티가 아니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자율적으로 자신이 소속하는 커뮤니티를 만들어야 한다는 의지를 갖는 것이다. 가족도 소셜네트워크도 직업별 길드도, 그것을 만들어 내거나 혹은 참가해서 유지하겠다는 의지가 있어야 성립한다. 지금은 바야흐로 그렇게 해야만 스스로 아노미 상태에 빠질 위험을 막을 수 있는 시대다.